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9.30.(금) 10:00
-------	-----	-------	----------------------

담당부서	국고국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5130)
	국채과	담당자	사무관 안경우 (gomee@korea.kr)

## 한국,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Watch List) 등재

- 향후 WGBI 편입시 약 50~60조원의 외국인 국채투자 유입 가능
- 정부 조달비용 절감 및 국채·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효과 기대

### [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결과 ]

-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9.29.(금) 17:00 (한국시각 9.30.(금) 06:00), 2022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Announcement September 2022)를 발표하였음

\*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

\*\*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는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발표하며, FTSE Russell은 이 분류 체계를 토대로 세계국채지수(WGBI) 등 채권 지수를 운용

- FTSE Russell은 이번 분류에서 한국을 잠재적으로 시장접근성 상향 조정 (레벨1→레벨2) 가능성이 있는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하였음

\* FTSE Russell은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국가별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을 레벨0~2로 구분하고 있으며, 레벨2 국가만 WGBI 편입 가능(한국은 현재 레벨1)

- 한국이 관찰대상국(레벨1→2)에 등재된 것은 FTSE가 2019년 3월 채권 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레벨1으로 평가한 이후 처음임
- FTSE Russell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 비과세, 외환시장 선진화 방침,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통한 국채 거래 활성화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외국인 채권 투자를 저해해왔던 요인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레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 향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절차 ]

- 한국은 이번 관찰대상국(Watch List) 등재로 이르면 내년 중 시장접근성 레벨 상향 조정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 가능성이 높아짐
  - \* 시장접근성 레벨 상향 조정은 관찰대상국에 최소 6개월 이상 포함된 후 가능
- FTSE Russell은 내년 3월과 9월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를 통해 한국의 제도개선 성과 등을 평가하고 시장접근성 및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
  - 한국의 시장접근성 레벨 상향 및 WGBI 편입 결정시, FTSE는 한국 국채의 WGBI ❶편입시점과 ❷편입비중의 조정기간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 ❶통상 WGBI 편입 결정과 실제 지수 편입시점 사이에는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둬
    - ❷통상 최종 편입 비중이 1% 초과시, 수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편입 비중을 확대
  - 현재 추정되는 한국 국채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0~2.5% 수준이며, 이는 편입국가 중 9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됨
    - \* WGBI 편입비중(% '22.8월말): (美)44.0 (日)15.0 (佛)7.4 (이태리)6.4 (獨)5.5 (스페인)4.3 (英)3.9

## [ 기대효과 ]

- 세계국채지수(WGBI)는 23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되어 있는 선진 채권 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임
  - \* 한국, 인도를 제외한 명목 GDP 10대국 모두 WGBI에 편입(중국도 '21.11월 편입)
-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경우, WGBI 추종자금을 중심으로 약 50~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됨('20 금융연)
  - \* 골드만삭스,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은 최근 국채 발행잔액과 환율 등을 감안해 자금유입 규모를 60~90조원 수준으로 추정
  - 외국인 국채 투자 유입에 따른 금리 하락으로 연간 약 0.5조원에서 1.1조원의 국채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한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국채 및 외환시장의 안정성 강화도 기대됨

## [ 평가 및 향후 계획 ]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FTSE의 이번 WGBI 관찰대상국 (Watch List) 등재 결정에 대하여 환영하는 의사를 밝히며,
  - 이번 관찰대상국 등재는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채시장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또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들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힘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 내년에 있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에서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FTSE Russell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참고 1

## WGBI 개요 및 편입 요건

① **[WGBI 개요]** 총 23개국이 편입된 세계 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로 런던 거래소 산하 FTSE Russell에서 관리

- 현재 북미·유럽·아시아 등 세계 주요국(23개) 국채\*들이 대부분 WGBI에 편입

\* 명목 GDP 기준 세계 10대국 중 한국,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WGBI 편입

- 추종자금은 글로벌 패시브 펀드(인덱스·ETF), 일부 액티브 펀드, 일본계 연기금 등 약 2.5조\$ 내외 추정\*(FTSE, 투자은행 등)

\* 한국이 WGBI 편입시, 외국인 국채 투자 50~60조원 유입 효과 추정('20 금융연)

- 추종기관은 편입 국가별 국채 비중을 벤치마크로 채권 투자

### 【 WGBI 편입국 현황 】

북미(3)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1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시아(6)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19년 편입), 중국('21년 편입)

\* 뉴질랜드도 '22.11월부터 지수에 편입될 예정('22.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② **[WGBI 편입 요건]**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잔액, 신용등급, 시장접근성 세 가지 요건 만족 필요

- (정량조건: 韓 충족) ①발행잔액 액면가 기준 500억\$ 이상, ②신용등급이 S&P 기준 A- 이상
- (정성조건: 韓 미충족) 시장접근성 Level.2 (韓 Level.1)

\* 시장접근성은 외국인 투자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FTSE의 주관적 평가 요소  
→ 제한이 없는 경우 Lv2,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 Lv1 (Lv2>Lv1>Lv0)

③ **[편입절차]** ①FTSE 협의 거쳐 관찰대상국 포함\*(매년 3, 9월) → ②6개월이상 검토후 연례심사(매년 9월)시 편입 결정(통상 1~2년 소요)

\* 목록 포함 전 정책상 변화 등에 따른 시장접근성 조정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함

## 1. Additions to the Watch List

### South Korea

During the course of 2022,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proposed several new initiatives intended to improve the structure and accessibility of its capital markets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vestors. These include:

- The proposed exemption of the withholding tax levied on investors in Korean Treasury Bonds (KTBs) b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which is currently subject to approval by the National Assembly<sup>1</sup>.
- Ongoing engagement between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and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ICSD) to expedite the resumption of KTB trading, subj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ithholding tax exemption<sup>2</sup>.
- The proposed reforms by the MOEF to allow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onshore South Korean Won foreign exchange market and to extend the market's trading hours in line with global markets.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s outlined above, **FTSE Russell announces that South Korea will be added to the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Watch List for the potential reclassification of its Market Accessibility Level from 1 to 2 and consideration for inclusion in the FTSE 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The inclusion of a market on the Watch List signals a focus on specific markets that are under consideration for a Market Accessibility Level change. It is intended to facilitate a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FTSE Russell, market participants and local regulators, resulting in a clear assessment of the degree to which a market meets specific Market Accessibility Level criteria. As part of the assessment, FTSE Russell will gather feedback from investors on the practicalities of investing in a given market and determine the degree to which a market is accessible. Any reclassification decisions are assessed against the practical experience of international investors, rather than the enactment of new regulation. Consequently, the timing of any classification change will be based on the period of time required for regulatory enhancements to be fully operational and the anticipated process benefits to be realised by investors.

FTSE Russell welcomes the recent developments and looks forward to continuing its engagement with South Korean regulators and market participants. The next update will be provided at the semi-annual review in March 2023.